

# ‘내핍과 정풍’ 선언한 북한의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

## Online Series

2021. 04. 19. | CO 21-13

박 영 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북한의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는 ‘경제난 심화 속 핵무기 체계 발전에 요구되는 내핍과 규율의 대중적 정풍운동’ 선언이다. 향후 5년간 대미(對美)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첨단전략무기 개발 등 핵무기 체계 고도화 과정에서 펼쳐질 수 있는 경제난 심화 속에 아래로부터의 동요와 불안을 ‘대중적 공포정치’로 규율하기 위한 행보이다. 경제난 가중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난관 속 삶’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현 대북제재 하에서 핵무기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며 나타날 수 있는 주민 궁핍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했다고 볼 수도 있다. 최소 향후 5년간 북한을 전망해 보면, 북한 지역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지 않는 한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기아와 아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여 년간 북한 시장화 과정에서 성장한 행위주체들이 나름의 생존 메커니즘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대규모 기아와 아사로 상징되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아니다. ‘돈과 자유의 맛’을 알아버린 북한의 주민과 기관들의 이반(離反)이다. 그러므로 이제 김정은 정권의 ‘대중적 공포정치’에 대응하여 북한의 주민과 기층 기관들이 어떠한 생존술을 펼치는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월 6~13일 총 8일간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말단 당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제6차 세포비서 대회 및 강습회·기념사업 등 후속 행사가 개최되었다. 당세포비서는 조선노동당 말단 당조직인 당세포(당원 5~30명 단위)의 책임자이다. 이 행사는 북한 전역에서 엄선한

당세포비서 중심 1만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4월 3일 평양에 도착한 후 사전행사까지 포함하면 10일 이상 진행된 대규모 행사였다. 또한 북한이 올해 1~2월 개최한 제8차 당대회 및 제8기 제2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다음으로 중요한 정치행사였다. 이 글은 이 대회의 특징과 의미, 역사성, 배경, 의도와 목적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전망과 향후 주목해야 할 지점을 제시한다.

### 핵무기 체계 고도화와 “고난의 행군”, 그리고 정풍운동

이 대회를 한 문장으로 평가하면, ‘경제난 심화 속 핵무기 체계 발전에 요구되는 내핍과 규율의 대중적 정풍운동<sup>1)</sup>’ 선언이다. 이는 지난 제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향후 5년간 북한의 양대 전략인 ‘첨단전략무기 개발’ 및 ‘자력갱생’과 연계되어 있다. 핵무기 체계의 3대 구성요소는 핵물질, 운반수단, 기폭장치이다. 현재 북한은 첨단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운반수단 및 이들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기폭장치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지속 상황에서 이 전략을 수행하는 데는 상당한 내핍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대회 폐회사(4.8.)에서 김정은이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sup>2)</sup>라고 발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의 1990년대 중반 기아(飢餓)를 떠올리는 평가들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기본적으로 일상적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을 전제한다. 그러나 ‘정권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그 의미는 김일성이 1938년 말~1939년 초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항일투쟁을 했다는 사상과 정신력 중시에 기초해 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를 “사생결단의 배짱과 공격전의 정신, 전화위복의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sup>3)</sup> 1996년 1월 1일 김정일이 언급한 《고난의 행군》 정신 역시 이러한 의미였다. 반면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그 의미는 1990년대 중반 북한사회가 경험한 대규모의 ‘기아와 아사(餓死)’이다. 한국과

1) 정풍운동(整風運動)은 1940년대 마오쩌둥(毛澤東)이 중국공산당 내부에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로 펼치기 시작하여 50~60년대에도 진행된 정치운동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당의 부패로 인해 당이 인민의 지지를 잃고 이반되는 상황을 쇄신하기 위해 진행한 당내투쟁이다.  
2)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폐회사,” 『조선중앙통신』, 2021.4.9.  
3) 『조선신보』, 재인용: “조선신보, 김정은 ‘고난의 행군’ 언급... ‘공격전 정신, 전화위복 전략,’” 『서울평양뉴스』, 2021.4.14.,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96>> (검색일: 2021.4.15.).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이 대회 폐회사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의미는 전자이다. 즉, 사상 강화에 기초한 내핍 요구와 정풍운동 선언이다.

지난 제8차 당대회를 총평하면, ‘내핍(耐乏)·사상·규율 강화를 통한 경제문제 억제 및 국방력 강화를 양대 축으로 한 정풍 제기’이다. 3대 핵심 특징으로 첫째, 외형적 슬로건은 “우리국가제일주의” 및 “인민대중제일주의”이나, 실질적 목적은 향후 5년간 핵심 국가전략으로 ‘자력갱생-첨단전략무기 개발’ 채택이다. 둘째,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이란 3대 이념에 기초하여 이 사업을 주도할 주체로써 노동당 당원 활동 쇄신과 검열 및 당조직 사업방식의 혁신 제기이다. 셋째, 세부 과업으로 당원들의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척결 및 당 내 상호비판·사상투쟁·학습 강화, 혁명적 규율 수립, 당간부 수준과 능력 제고를 제시했다. 이 3대 특징은 중국의 정풍운동과 유사하다.

### 체제위기 막아내기 위한 ‘대중적 공포정치’의 서막

조선노동당 세포비서 대회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중국과 소련의 ‘체제전환-한국과의 관계발전’이라는 위기의 시기에 김정일의 통치체제를 구축하면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후 김정일 시대에는 김일성 사망 및 연이은 자연재해와 함께 북한의 기아가 시작된 1994년, 북한정권이 시장화가 체제를 위협한다고 인식하고 ‘시장경제 통제’를 본격화한 2007년에 각각 개최되었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핵능력을 발전시킨 3차 북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장성택 세력의 대대적 숙청이 단행된 2013년, 이어 6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전면적 대북제재가 단행된 2017년 개최되었다. 그리고 북미 간 하노이 회담 실패 후 핵무기 시스템 강화를 통한 새로운 협상 전략을 모색하며 중장기전에 돌입한 2021년 올해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렇듯 북한 역사상 당세포비서 대회는 대내외 체제 위기 시, 특히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내부의 동요와 불안을 막아내기 위해 개최된 양상이다. 이러한 역사로 볼 때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는 현재 김정은 정권이 가지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내부의 동요에 대한 높은 ‘불안감’을 짐작케 한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과 대중을 이어주고 균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직접적 전투단위”로 당원 5~30명 단위로 조직된다. 북한의 노동당원을 대략 400만 명, 당세포 구성을 당원 30명으로 상정하고 추산할 때 당세포비서는 약 13만 명이다. 이러한 당세포의 위상과 규모를 고려할 때 금번

당세포비서 대회는 경제난 심화 속 전체 북한 사람들의 동요를 막아내기 위한 김정은 정권의 ‘대중적 공포정치’의 서막이라 평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후 제7차 당대회 시기까지 친족을 포함하여 김정은에게 충성심을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김정은 정권 안정화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고위층 권력엘리트들에 대한 잔인한 숙청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북한 권력층 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회한 권력엘리트들을 길들이는 통치 방식을 흔히 ‘김정은의 공포정치’라 한다. 당시 공포정치는 권력엘리트들이 주 대상이었다. 반면 향후 전개될 ‘대중적 공포정치’는 기층 당원과 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한 공포 분위기 조성의 정치이다. 그 이면에는 체제 위기에 대한 김정은의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

### 경제난과 고립 심화에 따른 불안과 동요에 선제 대응

김정은의 개회사에서 드러난 이 대회의 개최 배경 중 주목할 점은 3가지이다. 첫째, “류레 없이 많은 도전들을 헤쳐야 하는 극난한 형편”이다. 둘째, “세포비서들의 교체가 빠르고 지금 갖 사업을 시작한 세포비서들이 많은” 상황이다. 셋째, “당세포들의 사업에 내재하고 있는 결함들을 시급히 바로잡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 개최된 이 대회의 공개된 목적은 “당의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을 하나같이 단합되고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방도를 찾아 세포사업에 적극 구현함으로써 전당 강화의 지름길을 더 빨리 재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전진시키자”는 것이다.<sup>4)</sup> 『로동신문』은 이 대회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 “전당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당세포들을 전투력과 투쟁력이 강한 당정책 결사관철의 전위대로로 튼튼히 준비시켜 당의 령도력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당대회결정 관철과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의의 깊은 계기”라고 보고하였다.<sup>5)</sup> 즉,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고양, 말단 당조직으로부터 북한 전 기관과 주민들의 전투력과 투쟁력 강화, 제8차 당대회 결정 관철이다.

따라서 이 대회의 공식적 목적은 당원들의 충성심과 사상 및 제8차 당대회 결정에 대한 집행력 강화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북한의 경제난과 고립 심화에 따른 내부 불안과

4)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개회사,” 『로동신문』, 2021.4.7., 1면.

5) 『로동신문』, 2021.4.7., 2면.

동요 상황에서 기층 말단 당조직으로부터 규율과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은과 함께 개회식에 참여한 주석단의 진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주석단에는 김정은 외 북한체제 내 ‘모든 사람과 조직을 지도·관리·통제·규율·검열’하는 중앙당 책임자들이 집결하였다. 또한 이들은 4월 13일 김정은과 함께 대회 기념사진 촬영까지 함께하며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 김정은의 불안과 아래로부터의 변화

조선노동당 규약 45조에 따르면 기층 말단 조직으로 한 달에 1회 이상 총회를 해야 하는 당세포 사업은 첫째, 당원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구축, 둘째, 당원들의 당생활 조직과 지도 강화 및 기층간부(초급일군대렬) 양성, 셋째, 당원과 근로자들 내 사상교양사업 및 대중의 민심을 얻는 사업, 넷째, 행정경제사업 및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다섯째, 민방위사업 강화와 군대원호, 여섯째, 속도전적인 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군자리로동계급칭호쟁취운동” 등 전개, 일곱째, 상급당위원회에 자기 사업 보고이다. 당조직 중 사업영역이 가장 세부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으며 당원들 개개인이 속한 사업장에서의 성과 도출 및 사람들과의 사업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지난 30여 년간 시장화와 정보화로 상징되는 북한의 변화와 함께, 북한 주민과 당원들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확산 등 의식 변화도 상당하다.

20대에 집권하여 위로부터의 북한의 변화를 주도했던 김정은 역시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내باط과 사상 강화’라는 과거로의 복귀 정책이 현실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할 것이다. 그 불안의 내부적 배경은 금번 대회에서 공식 보고된 “지난 시기 당의 의도에 맞게 당세포의 전투적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드세게 내밀지 못한 결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주요 양상은 첫째, “당세포가 총비서동지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세포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지 못한 문제”이다. 둘째,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데 기본을 두고 당생활 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지 못한 문제”이다. 셋째, “당세포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지 않고 당정책관철의 직접적 전투단위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문제”이다. 넷째, “당세포비서들이 초급정치일군다운 품모와 자질을 갖추고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바로하지 못한 문제”이다. 다섯째, “당세포비서들이 당적 원칙, 혁명적 원칙이 없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지 못한 문제들”이다.<sup>6)</sup> 즉, 북한의 일반 주민



뿐만 아니라 당원들 역시 김정인에 대한 충성심 부족, 조직 생활과 사업의 이완, 개인 이익 추구, 타협과 부패의 일상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 그럼에도,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없어

북한 당국은 그 원인에 대해 “당조직비서들의 정치의식과 실무능력이 낮은 데 있”다고 지적한다.<sup>7)</sup> 그러나 더 이면의 원인은 현재 북한 사람들의 삶과 꿈이 ‘사상 중심의 집단적 내핍 생활로 복귀’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당과 김정인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외부 환경 변화를 자신들이 주도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랜 기간 당 시스템을 통해 노하우가 축적된 과거의 방식, 즉 절대 권력자를 중심으로 한 사상과 규율 강화를 통해 북한 사람의 의식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김정인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 하고”, “강한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하며, “참된 충신, 진짜배기혁명가들로 준비시키며 당세포들을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세포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쓸어버리는 발원점이 되어 맹렬한 투쟁을 벌리며 도덕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나가야”하는 것이다.<sup>8)</sup> 이러한 기조에 따라 대회 2일차 회의와 토론에서도 ‘강도 높은 부정과의 투쟁’, 사상성과 집행력 강화를 요구하였다.<sup>9)</sup> 김정인이 폐회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북한은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 것을 절대로 믿지 않”으며,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으며 오직 수백만 로동당원들, 특히는 수십만 당세포비서동지들의 심장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sup>10)</sup> 왜냐하면 북한 체제의 내구력(耐久力) 원천은 당 시스템을 통해 생활하는 이들 수백만 당원들이며, 가장 큰 자원은 이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저렴하고 성실한 노동력’이기 때문이다.

6) 『로동신문』, 2021.4.7., 3면.

7) 조용원의 보고 중, 『로동신문』, 2021.4.7., 3면.

8) 조용원의 보고 중, 『로동신문』, 2021.4.7., 3면.

9) 『로동신문』, 2021.4.8., 1~3면.

10) 김정인,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폐회사,” 『조선중앙통신』, 2021.4.9.

## 내피과 헌신의 10대 과업과 12가지 기본품성

당원과 주민들의 사상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당세포비서들의 10대 과업과 12가지 기본품성은 다음과 같다. 10대 과업은 ①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 ② 5대 교양(혁명전통 교양·충실성교양·애국주의교양·반세계급교양·도덕교양) 중심 사상교육사업 전면화, ③ 당 규약 학습강화와 당생활의 정규화·규범화, ④ 당생활 규율과 기풍 확립, ⑤ 당대회와 당중앙 중요 결정 관철, ⑥ 과학기술의 힘을 중시하며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및 재자원화 실현, ⑦ 입당대상자 교양과 단련, ⑧ 청년교양 특별 중시, ⑨ 천리마시대처럼 인간개조운동, ⑩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이다. 12가지 기본품성은 “당성, 원칙성, 정치성, 책임성, 이신작칙, 창발성, 군중성, 인간성, 진실성, 락천성, 도덕성, 청렴결백성”이다.<sup>11)</sup>

이와 함께 김정은은 폐회사에서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며 ‘당원들이 인민의 어머니가 되어 내피과 헌신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구체적 담론을 보면, 기층 당원들에게 “어머니와 같이 뜨거운 사랑과 헌신”, “보수없이 당을 위해 헌신하는 숨은 영웅 중의 영웅들”, “어머니당”, “인민의 《심부름꾼》”을 규율한다.<sup>12)</sup> 전체적 담론 구조를 분석해 보면 체제 내외적 위기에 봉착한 1990년대 김정일 정권이 완성한 “사회주의대가정”론을 다시 호명하는 모양새이다. 즉, 북한 체제를 하나의 가정으로 상정하고 ‘아버이 수령-어머니 당-자식인 인민’이라는 3자 간 운명공동체를 다시 구축하는 데 당세포비서들이 앞장서라는 요구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기층 당원과 주민들에게 그간 북한의 어머니들에게 요구했던 섬김과 돌봄, 헌신과 “이악한” 생존력을 규율하고 있다.

## 변화한 현실과 통치 정당성

그러나 그 목적 실현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의 사람과 조직운영은 1950~60년대 천리마운동을 하던 ‘주관적 정신력의 시대’나, 1990년대 ‘무방비한 아사(餓死)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하여 김정은이 10대 과업과 12가지 기본품성을 제시하게 된 북한의 현실을 살펴보자. 첫째, 조직생활이 이루어져 당생활 총화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검열의 중요한 방식인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11) 김정은,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2021년 4월 8일 제6차 세포비서대회 3일차 회의에서 결론), 『로동신문』, 2021.4.9., 1~3면.

12)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폐회사,” 『조선중앙통신』, 2021.4.9.

이다. 둘째, 당원들이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고 “이 구실 저 구실을 대면서 빠지려”하고,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지 않고 자기를 특수화하는 사람들, 당생활을 게을리하고 조직의 통제를 시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이다. 셋째, 과학기술이라는 명분하에 원료와 자재를 자처로 마련하고 폐기물 등을 다시 사용해야 하는 현실이다. 넷째, “새세대들의 사상정신 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이 문제는 북한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교양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섯째,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가 모든 사업에 만연한 현실이다.<sup>13)</sup>

이렇듯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시장화와 정보화 등에 따른 사람과 조직운영 변화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 또한 이 현상들은 북한의 일상생활에서 주민과 기층 기관들이 중앙에 기대지 않고 자립해야 했던 지난 30여 년의 결과이다. 그리고 “김일성-김정일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 체계 완성에 집중해야 하는 북한 정권의 입장에선 이를 일정정도 인정하고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금번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는 북한의 사람과 조직운영을 과거로 회귀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향후 5년간 대미(對美)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첨단전략무기 개발 등 핵무기 체계 고도화 과정에서 펼쳐질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동요와 불안을 ‘대중적 공포정치’로 규율하기 위한 행보이다. 또한 향후 경제난 가중으로 초래될 수도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난관 속 삶(제2의 고난의 행군)’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현대북제재 하에서 핵무기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며 나타날 수 있는 주민 궁핍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했다고 볼 수도 있다.

## 전망 및 주목 지점

향후 5년간 북한을 전망해 보면, 북한 지역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지 않는 한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기아와 아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여 년간 시장화 과정에서 성장한 북한의 행위주체들이 나름의 생존 메커니즘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13) 김정은,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2021.4.8. 제6차 세포비서대회 3일차 회의에서 결론), 『로동신문』, 2021.4.9., 1~3면.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1990년대 기아를 경험한 북한 사람들은 옥수수죽과 소규모 텃밭 생산물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는 ‘신체적 적응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기층 기관들 역시 중앙의 지원없이 ‘자생적 생존술과 부패구조’ 등을 통해 그러저럭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정권이 최소한 중앙당 및 전략군과 같이 체제를 지탱하게 하는 전략단위들의 생존은 책임지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 정권 역시 밀수출입과 사이버 활동 및 ‘내부로부터의 수탈경제 확장’ 등 나름의 제재 회피술과 통치자금 마련 방법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기아와 아사가 연상되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아니다. 지난 30여 년간 ‘돈과 자유의 맛’을 알아버린 북한의 주민과 기층 기관들의 이반이다. 북한과 같이 최고 통치자 개인의 권한이 절대적인 21세기 “전제 군주적 통치체제 (Autocracies)”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최고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인민의 지지가 철회’ 되는 것이다. 특히 자연자원이 부족하여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내부 노동력에 의존해야 하는 북한과 같은 “전제 군주적 약탈국가 (autocratic predatory states)”에서 대중적 지지에 기초한 통치 정당성은 더욱 중요하다.<sup>14)</sup>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강압과 내핍을 요구하는 ‘대중적 공포정치’에 대응하여, 북한의 주민과 기층 기관들이 어떠한 생존술을 펼치는지 주목해야 한다. 다시 전면화된 ‘위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반격’이 주시된다. ©KINU 2021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4) Aurel Croissant et al., *Comparing Autocracies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Volume 1: Unpacking Autocracies – Explaining Similarity and Difference* (New York: Routledge, 2014).